

내달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당정,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회의서 "최대 1000만원"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제한... 예방특위 구성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진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 몽골, 베트남 등으로 확산 중이며 국내 유입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해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조진석 과태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재입국 거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당정은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

기 위해 경기와 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해 현재 60억원 수준인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2730명의 담당관을 운영하고 월 1회 방문 및 주 1회 전화 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지막 살처분 후

바다,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뒤에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보다 자세한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원주 의원이 맡는다. 필요시에는 야당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염성이 강한 만큼 필요하면 남북한 공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접국에서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부터는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반드시 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이룬다"

'평범함의 위대함' 문 대통령 기고, 독일 FAZ에 게재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 예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의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3·1운동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기고문 제목은 '평범함의 위대함(부제: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이다. 기고문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라며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두개의 두 개의 '자각(自覺)'을 남겼다고 소개했다. 첫번째 자각은 국가 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자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승리는 느껴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됐다"며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3·1운동도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정확히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1919년 3월 1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다. 202만 명, 당시 인구의 10%가 참가한 대규모 항쟁이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근현대사는 도전의 역사였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가난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해 전진해왔다. 그 역사의 물결을 만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다.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존 듀이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적이고 형식적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을 소개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로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자국민기주의와 보호후약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뉴스

민주 이춘석 의원, 대국민 안전운전 인식 개선 세미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국민 안전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깜빡이라 부르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사전에 알림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지만, 도로상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지마자 방향을 바꾸거나 끼어들고 나서 잠깐 켜다 끄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공익신고 전체 건수(91.7만)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 건수가 15.9만 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2018) 조사에 따르면 깜빡이 점등률이 전국적으로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렇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올바른 깜빡이 켜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범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제안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미나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깜빡이 켜기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김진성 기자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드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금천구 차애민심센터에서 차애환자, 가족들과 함께 종이 카네이션 만들기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 미군비행장 무단 사유지 점유 대책 주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의 미군비행장의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방부 박길성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등이 배석한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군산 육서면 일대에 불법 소유권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군산 현지에 불법 매설된 소유권은 총장 8km에 공여 면적 즉,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이 67,582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 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